

# 업종 순환매 본격화... 車·조선 등 경기민감株 주목

언택트 수혜 종목 풀림 현상  
변동성 높아져 손실 주의보  
온라인 교육주 등 상승 꺾여  
모멘텀 보유 선택 투자 필요



경제지표 개선과 소비회복 기대감이 커질 경우 경기민감주가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언택트(Untact·비대면) 열풍에 탑승한 투자자들에게 '손실 주의보'가 내려졌다. 코로나19 수혜주로 꼽히며 풀림 현상이 나타났던 일부 종목들이 고점까지 치솟았다가 조정을 겪고 있어서다. 바이오 종목의 경우 변동성이 커 주의가 요구된다. 위축됐던 경제활동이 재개될 것이라 기대감이 오히려 일부 경기민감주가 들쭉이는 순환매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온라인 교육주의 상승 흐름은 이달 들어 꺾였다. 지난 2~3일 이틀간 메가스터디(-12.50%), 메가스터디교육(-7.53%), 메가엠디(-7.08%), 비상교육(-2.93%), 아이스크림에듀(-2.45%), NE능률(-1.90%) 등이 하락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교육부에서 전면적 등교 중지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소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메가스터디그룹주의 경우 손주는 메가스터디 의장이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

는 소식에 대해 회사가 "최대주주가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 공시를 냈음에도 주가 급락을 막지 못했다.

온라인 교육주는 서비스가입자 증가 등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코로나19의 대표 수혜주로 꼽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4일 "코로나19 이전의 교육주는 학령인구 감소와 경쟁 격화로 부진을 이어가던 섹터"라며 "투자자 관심에서 멀어지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시장 헬스케어 기업들의 하락

도 눈에 띈다. 지난 3일 랩지노믹스는 전날보다 2600원(10.24%) 급락한 2만 2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수전텍(-6.90%), 진메트릭스(-6.29%), 파나진(-5.91%), 메디톡스(-4.24%), 유비케어(-3.70%) 등이 전날에 이어 내림세를 보였다. 대다수가 지난달 개인투자자의 코스닥 시장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랐던 곳이다. 메디톡스는 지난달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종목 4위(498억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내림세를 보인 것

로 풀이된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말부터 일부 언택트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다"고 분석했다.

현재까지 상승 궤도를 이어가고 있는 게임주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인한 실적 견조세는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서다. 지난달 30% 가까이 상승한 엔씨소프트를 비롯해 대부분 게임주의 주가 상승에는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김민정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게임 종목이 언택트 관련주로 꼽히며 대체로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였지만 코로나19가 매출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이제부터는 개별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 위주의 선택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당분간 경기민감주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과도한 풀림 현상이 나타났던 언택트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경제활동이 재개될 것이라 기대감이 불거지며 자동차, 철강, 조선 등 그간 소외됐던 업종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조언이다.

최근 국내 조선사들이 카타르에서 수

십 조원 규모의 선박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은 이러한 기대감을 지탱하고 있다. 조선 업종이 일제히 강세를 보임과 동시에 지난 3일 조선 후판을 공급하는 철강사 동국제강은 전일보다 30.00% 오른 5720원에 거래를 끝냈다. 고려제강과 포스코강판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경제지표 개선과 소비와 투자 재개, 유가 반등, 소비심리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시장에서 경기민감주를 보는 시각이 예전과 달리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다"며 "언택트 비중을 줄이고 경기민감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유효해 보인다"고 했다.

일부에선 중장기적으로는 언택트 종목이 주도주를 형성할 것이라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언택트 소비와 비대면 사회, 물류산업 성장 등은 코로나19가 초래할 분명한 생활 속 변화"라며 "서비스 중심의 수요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전성기를 이끌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성걸 한화자산운용 매니저도 "장기적 관점에서 언택트 기업에 대한 투자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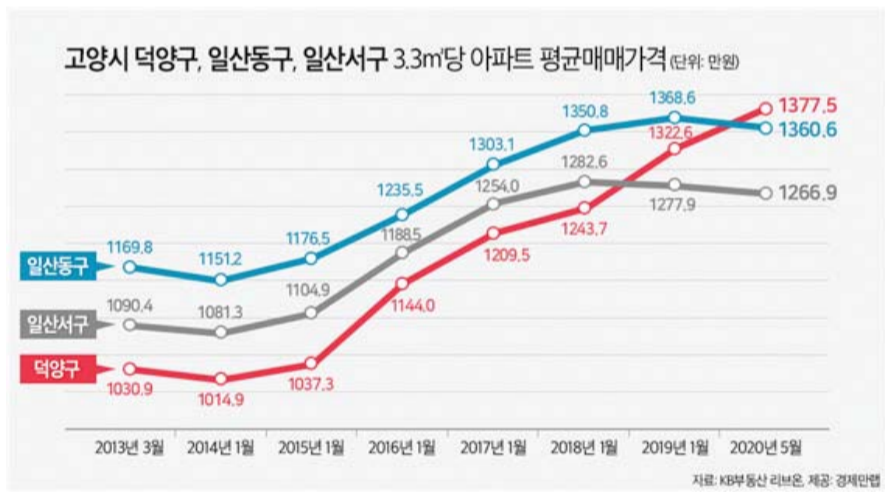
## 창릉신도시·고양선 호재... 덕양 집값, 일산 제쳤다

고양시 부동산 판도 역전  
덕양 1년새 최고 1.4억 상승  
일산 아파트값 제자리걸음

1년새 경기 고양시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역전됐다. 정부가 제3기 신도시인 창릉신도시를 발표한 지 1년 만에 고양 일산 아파트 가격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 덕양구 아파트 가격은 크게 올라 일산동구를 넘어섰다. 창릉신도시에 고양선 신설 영향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는 창릉신도시 계획과 고양선 신설을 발표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새철역에서 고양시청역까지 약 14.5km 구간을 신설, 기존 고양선을 서부선과도 연결시켜 서울 여의도와 용산, 강남 접근성을 높이기로 한 것. 이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가격이 일산동구의 가격까지 제치고 고양시 내에서 최고 아파트 가격으로 등극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1월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덕양구의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각각 1368.6만원, 1277.9만원, 1322.6만원으로 일산동구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창릉신도시와 고양선 신설 발표시점인 지난해 5월 이후 덕양구 아파트 가격이 치솟았다. 올해 5월에는 덕양구 3.3㎡당 아파트 가격이 1377.5만원으로 고양시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올해 5월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의 3.

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1360.6만원, 1266.9만원으로 오히려 하락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위치한 '서정마을6단지' 전용 140㎡는 지난해 5월 5억5800만원에서 올해 5월에는 7억원에 실거래돼 1년새 1억4200만원 올랐다. 덕양구 행신동의 '무원마을5단지' 전용 101㎡의 경우 올해 5월 5억 1000만원에 거래돼 1년새 1억1000만원 올랐다.

창릉신도시 고양선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에서 새로 나오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림산업은 이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지구에 세션 오피스 'DMC 스타비즈 향동지구역' 업무시설 1392실과 상업시설 340호를 분양한다. 고양선 향동지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롯데건설도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 동 일대에 '능곡연합재건축(가칭)' 834가구를 공급한다. 고양선 화정지구역과 경의중앙선 능곡역을 이용할 수 있다.

대창기업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도내 동 일대에 오피스텔 '고양 원흥 줍시티' 748실을 분양 중이다. 창릉신도시와 인접해 있고 북한산 조망이 가능하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4일 "정부가 3기신도시 건설과 함께 3기 신도시와 관련한 광역교통대책도 속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이번에 신설된 고양선으로 고양시 덕양구의 영향력이 갈수록 더 높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 미래에셋자산운용

### 美 ETF 운용사 글로벌X 신흥국 채권형 ETF 상장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사 글로벌X가 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미국 달러 표시 신흥국 채권에 투자하는 액티브 ETF를 상장했다. '글로벌X 이머징 마켓 본드(Emerging Markets Bond) ETF(EMBD)'는 글로벌X에서 처음 출시한 액티브 ETF다.

미래에셋자산운용(미국)이 이 상품의 자문을 담당한다. 미래에셋은 펀드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거시경제 전망, 신흥국 채권시장 리서치 등을 제공하게 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 ETF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미국시장에서 주목 받는 글로벌X를 2018년 인수했다.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와 달리 기초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추구하는 액티브 ETF는 최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ETF 유형이다. 기초지수는 JP모건 EMBI 글로벌 코어 인덱스(Global Core Index)를 사용한다. 달러화 표시 신흥국 공공채와 회사채에 주로 투자해 이자수익과 매매 차익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해당 포트폴리오에 장기적으로 선진국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하이일드 대비 낮은 변동성을 보여 자산배분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EMBD ETF는 기초지수 대비 국제 비중을 낮추고 공기업 및 회사채 비중을 높였다. 리스크가 높은 국가들은 제외해 투자종목수를 줄였다.

/송태화 기자

##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 7월 상장 예정

총 2370주... 공모가 5000원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가 오는 7월을 목표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추진한다.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는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해 본격적인 공모·상장 절차

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는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다. 국내 최대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이 자산관리를 담당한다. 상장 시 최초 투자 자산은 서울 중구 소재의 '태평로빌딩'

이다.

태평로빌딩은 임대 선호지역인 서울 도심(CBD)에서도 메인권역인 세종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과거 삼성그룹 사옥으로 사용되던 시청권역 핵심 빌딩 중 하나로 평가된다. 현재 CJ대한통문, 삼성생명, 중국공상은행, 보람상조 등 우량 임차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태평로빌딩은 이번 공모를 통한 자기자본 조달

을 통해 투자자산을 보유한 '이지스97호 펀드'의 수익증권에 투자할 계획"이라며 "향후 우량 오피스 빌딩을 보유한 부동산 펀드나 리츠를 추가로 편입하며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의 상장 대표주관사는 삼성증권이 맡았다. 인수회사는 한화투자증권과 신영증권이다. 총 공모주식은 2370만 주며 주당 공모가는 5000원으로 책정됐다.

/송태화 기자 @